

## ‘多가치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유아의 문화감수성 기르기’ 연구학교 운영

덕천유치원(원장 조은주)은 2016년부터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연구 개발해 오고 있다.

덕천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여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 인종, 성별, 신체적 특징, 장애, 가족 및 민족배경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多가치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유아의 문화감수성 기르기’ 프로그램 구안 적용해 왔다.

덕천유치원 원아들은 문화다양성 주간(5월 21일~5월 27일)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최, 부산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광복동 문화다양성 개막 축제 ‘한 가지 약속’ 캠페인 동영상에 참여하였다.



전국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의 하나로 5월 20일(토) 부모참여 교육활동 ‘문화야 놀자’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교사들에게도 공개하였다. ‘달라서 좋아요 달라서 아름다워요 함께 차이를 즐겨요’라는 주제로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세대 등의 문화체험을 각 교실마다 준비하여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노인 세대와 유아 세대 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긍정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고자 할머니, 할머니와 유아가 단짝이 되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 공감 올리내리 단짝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29일~11월 30일에는 2년간의 연구 성과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성과보고회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다. 유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과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남자? 여자? 아니 나!

급식시간 누군가 “맵다”고 말하니 “남자가 매운 것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거나 분홍색 색 종이를 쓰고 싶은 남자 친구에게 “그건 여자색이야. 왜 써.”, 파랑색으로 색칠하는 여자 친구에게 “남자색이잖아~ 선생님 00가 여자인데 남자색 써요.”라고 이야기 하는 유아가 있었습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를 보고 온 ♡♡가 “예쁜 여자가 나오는데, 성에 들어가서...”하며 영화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은 벨이 용감하고 씩씩해서 참 좋았어.”라고 말하자 순간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이 얼떨떨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에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요인을 ‘젠더’로 정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교육활동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젠더 수업 초반에 마네킹을 꾸미는 활동, 남자 여자가 잘 하는 일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아에게 벌써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아들에게 형성되어 있던 성고정관념들을 서로가 좋아하는 색을 알아보는 활동, 손전등 조립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유아들과 함께 하나 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주관을 운영하면서 유아들에게 벌써 형성되어 버린 성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였지만 예전같으면 “사자는 용감하니까 남자가 해야지”, “난 여자니까 예쁜 토끼 할게.” 했던 아이들의 입에서 “00는 사자처럼 소리도 내고 흉내도 잘 내니까 사자 역할을 해요”, “00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배경을 그리면 좋겠어요.” 라고 성적 특정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잘 하는 것에 따라서 역할을 정하자고 유아들의 입에서 대답이 나왔을 때 유아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별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편해서 무심코 유아들에게 했던 말들을(“통신문은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원피스 입으니 더 예쁘네” 등)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도 이야기 나누기 자료 속 그림, 노랫말에 남녀의 역할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덕천유치원이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처음엔 문화다양성 교육이 너무나 생소하여 교육활동으로 풀어가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문화다양성 교육은 평소 우리가 해왔던 유치원 교육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던 유아들의 반응과 태도의 변화는 교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끝으로 덕천유치원에서 2년간 진행해 온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자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배려의 싹을 심어주지 않았을까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